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권 (B.C. 37~A.D. 18), 제2권 (18~53), 제3권(53~165), 제4권(165~227): 국가성립기, 중국뿐만 아니라 낙랑, 현도, 대방 그리고 주변 부족국가와의 세력 경쟁.

제5권(227-331): 중국과의 충돌이 격화된 시기
동천왕(209~248): 위나라와의 외교교섭이 활발, 전쟁이 빈번해짐. 246년 관구검의 침입. 236년 오나라의 손권이 사신을 보내 화친하기를 요청했는데 사신의 머리를 베어 위나라에 보냄.

미천왕(311) 요동경략: "겨울 10월에 장수를 보내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현도, 낙랑, 대방군 공격. 선비족과의 충돌도 빈번해짐.

제6권(331-491)
고국원왕(371)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 선비족의 나라 (5호16국중 하나) 연과 요동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짐.

광개토왕(391~412): 백제와 후연과의 빈번한 전쟁. 장수왕 시기에 북위와 송에 대한 조공 횟수가 급격히 증가 (46회)

장수왕 26년(438): "위나라 사람이 자주 연나라를 치므로 연나라는 날로 세력이 줄어들어 연나라 왕 풍홍이 말했다. '만약 사태가 위급하면 우선 동쪽으로 고구려에 의지하여 뒷일을 도모하겠다.'... 438년 연나라 왕이 요동에 이르자 왕은 사신을 보내어 위로했다. ... 풍홍은 부끄러우면서 한편 화가 나서 스스로 천자의 입장에서 고구려왕을 꾸짖었다. 왕은 그를 평곽에 거처하게 했다가 북풍으로 옮겼다. 풍홍은 평소에 우리를 멸시하였는데 이제 와서도 정형과 상벌을 제 나라에 있을 때와 같이 하므로 왕은 그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을 빼앗아 버리고 그 태자 왕인을 데려다가 인질로 삼았다." 이후 남조의 송나라에서 풍홍의 인도를 요구. 장수왕은 풍홍을 죽임.

제7권(492-590): 백제와 신라의 중흥기. 551년 신라가 한강 유역 차지. 외교기사가 절반을 넘음. 문자왕은 재위 28년 동안 북위에 34회 조공. 6세기 고구려는 8개국에 90여회에 걸쳐 외교사절 파견. 같은 시기 백제의 20여회, 신라의 10여회. 남북조의 양, 진, 북위, 동위, 북제 등에 조공사절을 파견. 광개토, 장수왕대에 확보된 광활한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수의 등장: 평원왕 32년(590): "왕은 진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군비를 다스리고 군량을 쌓아 막아 지킬 계책을 세웠다. 수나라 고조가 왕에게 칙서를 내려 '고구려가 비록 번국이라 일컫기는 하나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책망했으며 또 말했다. '그곳의 한 방면은 비록 땅이 좁고 인구는 적지만 이제 만약 왕을 내쫓는다면 그냥 비어둘 수 없으므로 마침내 다시 관속을 선발하여 그곳에 나아가서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야 될 것인데, 왕이 만약 마음을 깨끗이 먹고 행실을 고쳐 헌장을 따른다면 곧 이는 짐의 양신이니 어찌 수고롭게 따로 재주 있는 인물을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은근히 타일러 왕의 허물을 고침을 허용할 따름이다.'"

제8권(590~642): 수당 교체기. 신라의 팽창기. 전쟁, 외교기사가 7할을 넘음. 수와 평화가 유지된 시기에는 백제, 신라에 대한 원정을 시도.

수의 고구려 침공:

영양왕 9년(598): "왕은 말갈의 군사 1만 여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침략했는데 영주총관 위충이 이를 격퇴시켰다." 수 문제, 육군, 수군 30만명으로 고구려 공격 시도. 보급 문제와 풍랑으로 중도 포기. 영양왕이 사죄의 글을 올림 "요동의 미천한 신하" 백제가 개입하여 "군사를 인도해 드리겠다"

영양왕 22년(611):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 지시. 장문의 전쟁목적을 전재: "고구려의 소인들은 혼미하여 공순하지 못하다 ..." 원정 실패. 요서지역 일부를 점령하는데 그침. 을지문덕의 활약.

영양왕 24년(613): 2차 고구려 원정 "고구려는 하잘 것 없는 오랑캐 놈으로서 상국을 업신여기고 있소. 이제 나는 바다를 뽑고 산을 옮기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을 바라는데 하물며 요놈쯤이야?" 신성, 요동성 함락에 실패. 양현감의 반란으로 회군.

영양왕 25년(614): 고구려 재공격. 비사성 함락. 고구려는 항복 청함. 양현감의 반란 때 고구려로 망명한 병부시랑 곡사정을 송환. 양제는 군사를 회군시킴. 고구려왕을 입조하도록 명했으나 따르지 않음.

영류왕 2년(619): 당나라에 조공. 622년 당의 고조가 고구려에 잡혀 있는 수나라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 "짐은 삼가 천명을 받아 온 천하에 군림하여 ..... 방금 천지와 사방이 편안해졌고 사해가 잘 다스려졌으며, 두 나라의 교분이 이미 통해져서 길이 막힘이 없으므로 이제 계속 친목을 펴고 길이 수호를 두터이 하여 각기 강토를 보전하면 어찌 크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소? 다만 수나라 말기에 군사를 ... 이제 두 나라가 화호를 통했으니, 도리가 막힘이 없게 되므로 이곳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은 머잖아 그들을 모아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곳의 이 나라 사람들도 왕은 석방하여 ..."

영류왕 9년(626): 신라와 백제가 사신을 당으로 보내 "고구려가 길을 막아 조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주 침략합니다." 산기시랑 주자사를 보내서 화친하기를 타이름. 고구려는 사죄의 글을 보냄.

625년 불교와 도법을 배우기를 청함. 640년 왕의 자제를 당의 국학에 입학하기를 청함.

641년 당은 직방낭중 진대덕을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둘러보게 함. "그 나라에서는 고창이 망한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객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은근하며 평상시의 예절보다 낫습디다." 당태종: "고구려는 본디 한나라 4군의 땅이다. 내가 군사 몇만 명을 일으켜 요동을 치면 그들은 반드시 국력을 기울여 이를 구할 것이니, 그 때 다로 해군을 내어 동래에서 나와

바닷길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가게 하여 육해군이 합치면 이를 빼앗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산동의 주, 현이 피폐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내 이들을 괴롭히지 않으려 할 뿐이다."

제9권, 제10권(642~668) 보장왕 27년 동안의 기록. 23회의 대당전쟁기사.
연개소문, 영류왕을 죽이고 실권 장악.

보장왕 2년(643): 고구려는 사신을 당에 보내 도교의 전수를 요청. 당태종은 도사 숙달 등 8인을 보내고 도덕경을 보내줌.

당태종: "개소문은 그 임금을 죽이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하니, 진실로 참을 수 없다. 오늘의 병력으로써 이를 쳐 빼앗음은 어렵지 않겠지만, 다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나는 글안과 말갈을 시켜 이를 침략하게 하려는데 어떻소"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

신라, 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우리의 40여 성을 쳐서 빼앗고, 다시 고구려와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끊을 것을 꾀한다." 군사지원 요청.

보장왕 3년(644): 당태종, 사농승 상리현장을 고구려에 보내 "신라는 우리나라를 잘 섬겨 조공을 폐하지 아니하니, 그대 나라와 백제는 각각 마땅히 군사를 거둘 이이다.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명년에는 군사를 일으켜 그대의 나라를 치겠다."
연개소문은 이를 거부: "우리는 신라와 원한으로 틈이 벌어진 지가 이미 오래됩니다. 지난 날 수나라 사람들이 쳐들어 왔을 때, 신라는 그 틈을 타서 우리 땅 5백 리를 빼앗고, 그 성읍을 점거하여 이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침략한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라를 치는 것은 아마 막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추구하여 논란하겠습니까? 지금 요동의 여러 성은 본디 모두 중국의 군, 현이었지만 중국은 오히려 또한 말하지 않는데, 고구려만 어찌 반드시 옛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연개소문은 이를 거부.

당태종: "개소문은 그 임금을 죽이고 대신들을 해치고 그 백성들에게 잔악하게 하며, 이제 또한 나의 조명을 어기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원정을 만류하는 신하들에게 당태종: "나는 알고 있소. 근본을 버리고 말단으로 달리는 일, 높은 것을 버리고 낮은 것을 취하는 일, 가까운 데를 두고 먼데로 가는 일, 이 세 가지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되는데, 고구려를 치는 것이 이것이오. 그러나 개소문은 임금을 죽이고 또 대신을 죽이고서도 만족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살피지 못했을 뿐이오."

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요동의 확보를 위한 대립. 645년: "요동은 본디 중국 땅인데, 수나라가 네 번이나 군사를 출동시켰으나 이를 찾지 못했다. 짐이 이제 동쪽을 정벌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는 자제들의 원수를 갚고, 고구려를 위해서는 임금의 치욕을 씻어주려는 것뿐이다. 또 사방은 대략 평정되었으나 오직 이곳만이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짐은 늙지 않은 지금 사대부의

남은 힘을 써서 이를 빼앗으려 한다."

수차례에 걸친 당-고구려 전쟁. 668년 고구려의 멸망.

논평: "고구려는 두려움이 많은 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겸손한 뜻은 없고,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여 원수를 만들었고, 그 군현에 들어가서 거처하게 되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전쟁이 잇따라 일어나 화를 맺어 조금도 편안한 해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동으로 천도하고 난 후에 수나라, 당나라의 통일된 시기를 만났는데도 오히려 조명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황제의 사신을 토굴에 가두기까지 했으니, 그 완고해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으므로 중국으로부터 여러 번 죄를 묻는 군사가 오게 했다. 비록 혹시 기계(奇計)를 써서 대군을 패배시킨 적도 있기는 했으나, 마침내 왕이 항복하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야 그치게 되었다."